

LG화학, 생산·기술 전문위원제 도입

KAIST 화학공학박사 이향목 포함 5명 선임 ... 연구개발 기능 강화

LG화학은 생산·기술 분야의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KAIST 화학공학과 박사 출신인 이향목(중대형전지 사업담당) 부장을 첫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.

또 석유화학연구소의 한창훈 부장, 안정현 부장, 정보전자소재연구소의 김동렬 부장, 배터리연구소의 신영준 부장 등 박사급 4명을 연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.

이에 따라 LG화학의 연구·전문위원은 모두 11명이 됐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 임원 수준의 보상과 처우가 보장되고, 특정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·기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2/25>